

Library matters and their use : as a course in college curriculum

도서관과 문헌 이용 지도

— 대학 정규과목으로서의 필요성 —

신 숙 원
(서강대도서관 부관장)

I. 머릿말

1975년 9월 학기에 西江大學校에서는 처음으로 “도서관 이용법”이라는 과목을 교양선택과목으로 신설하여 한 학기간 매주 두 시간으로 이수하게 하여 현재까지 약 400여명의 학생들이 수강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부분은 대학교육 이전에 도서관 자료를 이용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과 도서관의 복잡한 조직과 다양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가 대학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요지에서 “도서관 이용법”과목은 설치되었다.

이 과목을 신설한 첫 학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기 쉬울것 같아서” “학점수가 모자라서” “이상한 이름을 가진 과목이어서” 등의 진지하지 않은 동기에서 수강하였으며 또한 교과내용에 관해서도 도서관과 자료이용에 대하여 특별히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의아해 한 학생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 후 학기말에 이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처음의 태도와는 달리 많은 학생들이 올바른 도서관 이용이 깊이있는 공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실제로 도서관을 사용하도록 하는 속제를 한 것이 꼭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도서관 이용법”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채택하여 1·2학년때 수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강의시간수도 첫 학기에는 일주일에 한 시간이었는데 학생들의 요구로 두 시간으로 늘리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西江大學校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도서관과 문헌 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과목이 공부와 연구가 생명인 대학에 반드시 정규과목으로 수강되어야 할 필요성과 그 과목에서 담당해야 할 교과내용,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論하고자 한다.

II. 대학교육의 배경

먼저 대학 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논의는 그

母體인 대학의 목적과 기능을 전제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國家와 人類 社會 發展에 必要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그 廣範하고 精緻한 應用方法을 教授, 研究하는 同時에 協同精神이 豊富한 人格을 陶冶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라고 「文敎法典」에서는 밝히고 있다. 구태여 「文敎法典」의 말을 빌리지 않는 다해도 대학의 생명은 대학사회를 이루고 있는 교수와 학생들의 학문적인 활동에 있다. 대학교육은 교수와 학생들이 연구와 공부를 통하여 기존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지식을 탐구·생산하여 인간을 無知에서 해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참되고 아름다운 최선의 방법으로 인류생활의 質과 量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높고 어려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구적인 활동을 키워줄 무대는 어떠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이어야 할 이 知的인 움직임이 종래에는 한·들의 교과서 중심으로 교실안에서 주어지는 교수의 강의에 전적으로 의존되어왔다. 대부분의 경우에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主題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교수로부터 주입식으로 보급받고 한 학기에 한·두번 주어지는 시험때에 그 지식들을 암기하는 수동적인 그리고 극히 피상적인 방법을 의미해왔다. 이러한 학업방법은 학생들이 배우의 세계에 넓게, 깊게 도전하도록 흥미와 자극을 주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문헌들을 읽어서 포괄적이고 깊이있는 지식을 얻은 후 종합하여 다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고력과 비판력을 길러줄 수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배우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깊은 사고력과 맹렬한 비판력의 결여는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창의력을 키울 터전을 뒤흔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종래의 대학교육은 기존지식을 알략하게 얻는 것으로 지나버리고 학생들은 암기하는 기계에 불과했다고 해도 지나친 예기는 아닌듯 싶다.

1) 「文敎法典」(서울: 교학사, 1970), p. 42

이러한 교육방법은 학생들에게 도서관이 강의실의 연장이라는 개념을 넣어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에게 도서관은 읽히지 않는 도서들을 장식품으로 진열해 놓은 “책창고”이거나, 자습하는 “조용한 장소” 또는 소설류 중심으로 “재미있는” 책을 읽는 “讀書館”으로써만의 기능을 인정받았으며 司書들은 도서를 지키는 파수꾼에 불과했다. 「B사감과 러브레터」에 나오는 생애 지친 노처녀의 모습을 닮은 여자司書나 다른 곳에 과히 능력이 있을상 싶지않은 남자司書가 줄이 달린 안경을 코끝에 걸고 안경너머로 노려보면서 “씻——”하며 “조용히”만을 강조하는 思想과 精神의 교류가 없는 침체한 장소——이것이 도서관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이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도서관의 映像은 교수방법이나 학구열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自意에 의한 것이든, 他意에 의한 것이든 도서관에게도 공범의 책임이 있다. 아직도 적지않은 도서관들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러 업무를 행하는 대신 대출업무에만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하면 대출업무가 그 전부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도서관 업무는 제한되어있다. 카드목록 주위를 의문이 가득찬 얼굴로 서성거리고 있는 이용자를 보아도 그 쪽에서 질문을 하기까지 기다리고 있거나, 어떻게 더 많은 자료를 이용시키나 하는 것 보다는 한 권의 책이라도 없애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더 많은 정열을 쏟고 있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Learning Resources Center”로써의 현대적인 도서관 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여년 전의 일이었다, 그 개념을 뒷받침해주고 이상적인 도서관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료, 시설 그리고 人的資源은 다른 부문의 발전에 비하면 중세기에 속한다고 혹평을 하여도 과히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예를들면 97개의 대학도서관에서 불과 388명의 司書가 年間 약 4,942,655명의 이용자를 돕고 있다고 한다.” 司書의 학문적인 배경은 고사하고 우선 그 量的인 면 만을 문제 삼는다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도서관이 대학의 목적인 교육활동을 의미있게 보조하는 불가능하다.

위에 언급한 주입식 교수방법과 수동적인 도서관의 자세는 “교육人口, 정보·지식의 폭발시대, 두뇌산업시대”라고 불리어지는 20세기의 도전을 받고 있다. 수없이 발간되는 다양한 자료안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얻는 것이 “정보시대”에 생존하는 유일한 길임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다. 종래에는 몇 권의 단행본이 자료의 중심이 되던 것이, 현대에는 학술잡지의 연구논문, 정부간행물, 기

술보고서, 연구보고서, 시청각자료, 신문, pamphlets, microforms 등의 다양한 자료가 지식과 정보의 출처로 이용된다. 이렇게 급진적으로 증가되는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해 놓은 곳이 도서관이므로 도서관 조직과 그 자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지식은 現代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식과 정보의 폭발은 지식의 전문화와 분석적인 연구방법을 요구하고 이러한 시대의 요구는 대학교육에도 반영되고 있다. 문교부가 대학졸업학점을 160에서 140학점으로 낮추고 도서관과 실험실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한 것은 종래의 암기중심의 주입식 교육방법을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깊이있는 교육을 보급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종래의 강의실에 국한된 학문생활에서 벗어나 학생들 스스로가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포괄적으로 공부한 다음 분석·평가하여, 생각하는 능력과 비판력 그리고 새로운 결론이나 해석을 내릴 수있는 창의력을 길러주는 교육에로의 움직임이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새로운 물결은 도서관에게도 종래의 정지한 상태의 “자습하는 장소” 로써의 역할에서 벗어나 모든 知的 활동이 약도하는 배움의 터전으로써의 탈바꿈을 강요하고 있다.

Ⅲ. 도서관 이용지도의 실태와 그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 교육을 살펴보면 “도서관과 문헌 이용법”을 대학의 정규과목으로 이수하게 하는 학교의 수는 극히 적은 편이다, 安永柱·姜富弼의²⁾ 조사에 의하면 몇몇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이 장래의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위해 도서관 이용법을 1—3학점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을 뿐 종합대학은 한·두 학교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들면 大田大學에서는 신입생에게 교양필수 과목으로 한 학기 한 시간씩 1학점을 취득하게 하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는 교양선택 과목으로 한 학기 한 시간씩 2학점을 취득하게 한다. 그의 한·두 학교에서는 대학국어의 한 單元으로 “도서관 사용법”을 포함하여 지도하고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도서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있다.

12개 대학도서관의 司書71명과 학생 1,287명을 대상

2) “대학도서관 집계표” 「도협월보」, 15, 11 (1974), p. 6.
3) 安永柱, “韓國에 있어서 大學圖書館의 効果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 1965), p. 94.
姜富弼, “韓國大學 圖書館學科의 教育課程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1970), p. 170.

으로 도서관교육에 관하여 조사한 羅成實의 논문에서 보면 신입생을 위하여 도서관안내(library orientation)를 하는 도서관이 91.55%로 단연 압도적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때 다른 부처와 함께 실시한다」가 73.85%, 「도서관 이용안내 책자를 배부한다」가 60%, 「도서관 견학시간을 갖게 한다」가 32.3%, 「전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때 독립해서 日程이나 시간을 별도로 잡아 실시한다」가 13.9%, 「각 단과대학별로 나누어 실시한다」가 10.8%, 「교양국어과정에서 실시한다」가 9.2%, 「각 학과별로 나누어 실시한다」가 4.6%, 「교수요청에 수시로 한다」가 4.6%의 順으로 나타나 있다.⁴⁾ 이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도서관 이용지도는 학과가 다른 학생들을 한 자기에 모아서 한·두 시간에 걸쳐 무엇이 어디 있다는 정도와 도서관 규칙에 관한 피상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수박 겉핥기의 연례행사, 도서관 이용에 관한 책자배부, 대학요람과 대학신문에 실린 도서관 안내문, 이용자의 특정한 질문에 대한 대답만으로는 도서관의 복잡한 조직과 자료의 실제적인 이용에 대한 지도를 대치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 司書의 84.62%와 학생의 94.5%가 해당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교육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⁵⁾ 그 이유로는 도서관이용지도에 할당되는 시간이 너무 짧아 그 시간안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피상적이어서 실제 도서관 이용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羅成實의 조사에서 보면 도서관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은 불과 5.5%에 지나지않고 46.9%가 「도움이 안되었다」고 47.6%가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⁶⁾

이러한 결과는 대학의 심장부에 속하는 도서관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이있는 도서관교육을 정규과목으로 보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IV. “도서관과 문헌이용법” 과목의 내용

도서관에 조직적으로 정리되어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와 도서관업무들 적절하게 이용시키는 데에 이 과목의 목적이있다. 그 교과내용은 크게 넷으로 나눌수 있다. 첫째는 카아드목록사용, 두번째는 참고도서의 종류와 사용법, 셋째는 자료수집방법과 논문작성법, 그리고 넷째는 도서관업무에 관한 소개이다.

가. 카아드목록 사용법

먼저 카아드목록 사용하는 방법은 겉으로 보기에 간단할 것 같아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없을 것 같으나 도서관정리·분류법, 그리고 특히 카아드 배열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카아드목록은 도서관의 자료들을 著者, 書名, 主題別로 정리한 도서관 자료에 대한 索引이다.

지난 1976년 10월에 西江大 도서관에서는 보다 능률적인 도서관 업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도서관에 관한 설문을 배부하였다. 그중 카아드목록에 관한 질문에 답한 271명중 65%가 著者·書名목록을 사용한다고 하며 가장 많이 읽는 것이 소설류로 46%, 철학 및 종교서적이 25%, 詩와 수상집이 11%로 나타났다. 이 경우엔 著者나 書名을 알고 찾기때문에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카아드목록 사용에 대한 지식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카아드목록 사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은 도서관이용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필요충분조건이다.

학생들이 카아드목록 사용법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대신 도서관은 학생들의 카아드목록에 대한 지식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羅成實의 조사에서 보면 著者名카아드를 아는 사람이 75.1%, 書名카아드를 아는 사람이 58.7%, 主題名카아드를 아는 사람이 40.8%, 參照카아드를 아는 사람이 21.3%이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자료를 찾을때 가장 간단한 저자카아드를 모르는 사람이 25%, 서명카아드를 모르는 사람이 42.3%나 되는 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⁷⁾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자가 서양인인 경우 姓과 이름(first name)을 구별하지 못하고 동양인의 이름과 같이 취급하여 책표지에 써있는 순서 대로 이름 밑에서 찾는 경우도 있고 또 姓이 복합어인 경우에는 어느 단어가 姓인지 알지못하여 찾지못하는 예도 많다. 또한 M', Mc, Mac로 시작되는 姓들은 다 Mac으로 취급하여 찾는 배열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교적 사용이 간단한 저자·서명목록도 배열규칙과 도서관정리법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능률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움을 알수있다. 더 나아가서 배열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을 살펴보면 「배열방법을 잘 안다」가 겨우 36%에 달하며 그들도 많은 시간과 정력의 낭비끝에 경험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다고 언급하므로써(44.7%)⁸⁾ 현재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 이용지도가 대학인구들에게 큰 도움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특정한 저자나 서명을 모르고 어떤 主題에 관

4) 羅成實, “大學教養課程에 있어서 圖書館教育의 必要性에 관한 研究”(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1972), p. 88—90.

5) 같은책, p. 32, 92.

6) 같은책, p. 32.

7) 같은책, p. 65.

8) 같은책, p. 77—78.

한 자료를 찾고자하는 경우에 주제명목록이나 분류목록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식은 더욱 부족한 것 같다.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주제명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분류목록에 의존하는데, 분류목록은 완전한 주제색인목록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도서관들이 충분히 세분화된 주제색인목록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거나 서양도서는 주제명목록에, 동양도서는 분류목록에 따로 정리하여 같은 주제의 도서들이 한 카아드목록에 보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西江大의 경우를 보면 분류목록을 사용하다가 1975년 9월부터 주제명목록으로 바꾸어 새로 정리되는 도서는 모두 주제명목록으로 정리되며 분류목록의 자료들도 주제명목록으로 바꾸고 있는데 설문 응답자들이 주제명목록이 분류목록보다 사용하기에 훨씬 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도서관 자체의 불완전한 카아드목록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이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르고 있거나, 또 아는 사람도 주제명목록이나 분류목록 사용에는 썩 생소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카아드목록에 대한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목록·분류법과 배열방법, 그리고 주제명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실습을 통하여 카아드목록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자료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목록카아드의 각 사항들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여 카아드목록이 단순히 司書나 규칙을 위한 목록이 아니라, 실제로 자료선택과 이용에 카아드에 있는 모든 사항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참고도서의 종류와 사용법

카아드목록 사용에 관한 강의의 다음에는 참고도서의 종류와 사용법이 소개되어야 한다. 참고도서는 특정한 지식이나 정보·자료를 찾을 때 사용되는 도서들이며, 이용자가 원하는 내용에 따라 辭典, 百科事典, 人名辭典, 地名辭典, 地圖帖, 名鑑, 年鑑, 年譜, 書誌, 索引便覽,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각 도서관에서는 여러 종류의 참고도서를 준비하여 이용자들의 요구에 답하려고 애쓰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無知로 대부분의 참고도서들은 도서관의 권리를 빛내주는 장식물에 불과한 예가 허다하다. 이에 대한 조사에서 보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참고도서가 學園社의 「大百科事典」(63%), *Encyclopaedia Britannica* (22.6%)이며 그의 자료는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⁹⁾ 특히 書誌와 索引에 대해서는 그 存在에 대해서조차 아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도서관과 문헌 이용법”과목에서는 기본적인 참고도서의 종류와 그 사용법을 설명하고 각 종류에서 중요한 참고도서들을 선택하여 문제를 만들어 학생들

이 직접 참고도서들을 사용하고 검토하여 해답을 찾도록 하여 참고도서와의 사이를 좁혀 주어야 한다.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참고도서를 解題하여 책으로 발간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한다든가, 새로 들어온 참고 서적을 도서관 소식을 전하는 안내서, 게시판 등에 정기적으로 소개하여 참고도서에 관한 인식과 이용을 넓혀주어야 한다.

다. 자료수집과 논문작성법

셋째로 이 과목에서 담당해야 할 내용은 자료수집 방법과 논문작성법에 관한 지도인데, 요즘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문교부가 졸업논문을 졸업의 필수조건으로 한 것이 그 으뜸가는 이유이겠지만 또 한편으로 많은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얻는 제한된 지식에 회의를 느끼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학생들의 논문에 관한 관심과는 달리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험보고서나 내용을 요약하는 글 외는 써본 경험이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논문을 쓰려면 우선 넓은 주제를 선정한 다음 주제명목록과 여러 참고도서(백과사전, 정기간행물색인, 서지, 색인등)를 사용하여 주제를 세분화 시킨 다음 그에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여 읽고 연구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한 다음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결론이나 해석을 첨가시켜야 하는데 논문을 써본 학생들도 자료수집과정에서 書誌나 索引을 사용해 본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교수가 추천해준 한·들의 단행본에 의탁하여 극히 제한된 자료만을 이용하였다. 그보다 조금 나은 경우가 주제명목록을 사용하거나 서고에 직접 가서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는 정도이다. 학술잡지나 정기간행물에 실린 논문을 찾기 위하여 그 분야의 잡지들을 일일이 목차를 통하여 찾았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논문작성법과 자료수집에 관한 강의에서는 자료를 포함하는 각종의 참고도서와 자료의 다양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교과서 이외에 다른 문헌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학생들에게 자료의 의미를 납득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자료의 종류에 단행본뿐만 아니라 학술잡지의 논문, 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정부간행물, 신문기사, 시청각자료, 학위논문등의 많은 자료를 소개시켜서 공부나 연구자료는 “인쇄된 두꺼운 책”이라는 종래의 제한된 개념을 넓혀주어야 한다.

또한 논문을 쓴다고 가정한다면 주제를 선정하게 하고 주제명목록과 기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주제를 세분화 시킨다음 그에 필요한 자료를 뽑아 書誌를 작성하도록 하는 실습을 하면 書誌와 索引을 사용하는 법과 자료선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때 특히 脚

9) 같은책, p. 72.

註와 書誌기입형식, 원고쓰는 방법에 대한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

라. 도서관업무에 관한 소개

넷째로 참고봉사업무와 그의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업무의 소개를 이 강의에서 담당해야 한다. 도서관의 모든 업무는 “이용되는 도서관”을 목적으로 하므로 끊임없이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업무중 이용자가 알므로써 효율적인 도서관이용에 필요한 것은 대학신문, 게시판, 도서관소식등 기타 방법으로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예를들어 카아드목록에 없는 도서가 수서실이나 정리실에 있을 경우에 이용자가 각부처의 업무를 알면 필요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정도서제도, 개인예약제도, 도서관간의 상호대차제도, KORSTIC Service 등을 비롯한 각종 업무의 소개와 도서관 사용시의 예의등도 다 포함하여야 한다.

V. “도서관과 문헌이용법”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이상에서는 간단하게 “도서관과 문헌이용법” 과목에서 포함해야할 강의내용을 다루었다. 이 과목에 대한 반응을 살피기 위하여 매 학기가 끝난 후 評을 쓰게 하였는데 그중 몇개의 예를 들어보겠다.

“도서관학 course는 무척 중요한 것 이라고 생각하고 4학년인 나 자신으로서 이런 코—스를 1학년 때나 2학년 때 수강할 수 있었다면 훨씬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여깁니다. Report를 쓸 때의 불편한 점은 어디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information이 있나를 몰라서 쪼쪼매고 결국은 도서관내서 시간만을 허비하고 피곤한 채로 도서관을 나갈 때를 돌이켜 보전대, 가능하다면 1학년이나 2학년때 교양필수로 이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막연히 工夫하고 책밀려보는 도서관이 아니라 언제나 손 벌리면 무엇이든 고집어 낼 수 있는 도서관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쉬웠던것은 1주당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으므로 충분하지 못한 것을 느꼈으며...”

“저는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일 학점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듣자고하여 수강했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 두째 시간이 지나고나니 정말 학점에 비해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도서관에 가서 그냥 무턱대고 책을 찾았는데 이제는 도서관의 그 조직적인 것을 약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대학생의 교양과목으로써 도서관 이용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졸업맞는 마지막 학기에 이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들어가서 안타깝지만 하다. 입학한후 1학년, 적어도

2학년까지는 도서관 이용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과목이 일찍부터 있어야했는데. 지금이라도 선택할수 있는 후배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욕심같지만 1학년의 교양필수과목으로 선정되었으면 더욱 좋겠다.”

이상 열거한 評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학생들이 이 과목을 처음 택할 때의 장난기어린 태도에서 올바른 도서관이용이 대학과정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였고 그동안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어디서 무엇을 찾아야할지 몰라 방황만하고 시간만 허비하다가 좌절감만 느꼈고 이런 경험들이 도서관을 멀리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과목을 택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필요성을 조사한 羅成實의 논문에서 보면 이 과목을 「수강하고 싶다」가 67.2%, 「필요없다」가 21.5%, 「잘모르겠다」가 11.3%로써 도서관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전체학생의 과반수 이상임을 알 수 있다.¹⁰⁾

VI. 맺는 말

가. “도서관과 문헌이용법”과목 설치

이제 새로운 대학교육의 방향, 140학점제, 졸업논문, 정보·지식·자료의 폭발, 신속한 정보에 대한 시대의 요구, 전문직 司書의 증가등으로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고 있다. 이 인식은 도서관에게 보다 충실한 質的, 量的 발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증가되는 도서관의 장서와 확대되는 업무에 따르는 경제적·人的 자원은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이용될때에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앞으로 도서관이 더욱 많은 사람들의 생활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도서관과 문헌이용법”과목이 대학교과과정에서 정규과목으로 포함되어, 학생들이 모든 학문연구의 기본이 되는 도서관과 자료이용에 관하여 깊이있게 배워서 대학을 떠난 후에라도 배움의 세계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하다.

대다수의 대학도서관들이, 특히 도서관학과가 있는 대학에서도, 이 과목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효율적인 도서관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학교당국의 인식부족과 물이해로 강의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제 도서관은 어느날 갑자기 이해심 많은 행정가가 나타나 도서관을 위해 무엇을 해주리라고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기다려왔다. 이제는 우리의 일은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때다.

따라서 “도서관과 문헌이용법”과목이 필요하다고 말

10) 같은책, p.84.

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에 관하여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를 학교 행정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학교신문이나 기타 학술지에 발표하여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일으켜야 한다.¹¹⁾ 또한 학생들에게 도서관이용에 관한 설문을 배부하여 구체적으로 그들의 도서관에 대한 지식을 조사하여 그실태를 학교당국에 보고하여 도서관지도의 필요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또는 他大學의 예나 이미 연구된 결과에서 자료를 뽑아 교과과정위원회에 건의할수도 있다. 처음 시도에 안되었다고 포기해서는 안될것이며 계속 매 학기 교과과정에 관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各大學의 司書만으로 실현이 어려울 경우에 도서관 협회, 도서관학회, 도서관학파들이 같이 문교부를 통하여 학교당국을 설득시켜서 도서관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가능하면 班을 전공별로, 그리고 低學年, 高學年으로 나누면 보다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

나. 도서관의 나아갈 길

대학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대학의 학구적인 활동을 보조하는데 있다면 기초적인 교양과목을 주로 택하는 1·2학년 학생들로부터 전문분야의 기초지식을 공부하는 3·4학년, 좀 더 세분화된 전문분야를 공부하는 대학원생, 그리고 전문분야의 권위자들인 교수들까지 골고루 포함하고 있는 大學人口의 知的·情緒的·教養的인 활동에 관여된 요구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서관과 문헌이용법” 과목과 더불어 司書들은 교수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교과과정과 과제물의 내용을 조사하여 도서관자료와 업무가 강의실에서 이용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도서관이 강의실의 연장이 되기 위해서는 司書들이 학생들의自律학습을 도울 수 있을만큼 강의의 진행과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학계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정리하여 도서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는 司書들에게 전문분야의 지식을 요구한다. 이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도 主題전문가가 필요한 단계이다. 예를 들어 과학분야에 전혀 지식이 없는 司書가 참고도서 이름 몇 개와 분류번호만으로 그 분야의 학생들을 도와주기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그들의 불신감을 조장시켜 도서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기 쉽다.

매 학기 초에 복학생이나 그의 원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그리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도서관이용법을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교수들과 상의하여 적절한 과목

시간에 몇시간을 할당받아 전공별로 도서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논문기사나 그의 자료를 찾을 때 상업적인 索引이나 書誌에만 의존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흥미있어하는 주제나 시사성이 있는 문제에 대하여 書誌를 작성하고, 또 기존의 索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많은 잡지, 대학신문, 대학논문집등을 索引하여 그 도서관이 비치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知的인 호기심을 자극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어느 때 누가 어떤 주제에 관하여 요구하더라도 응답할 수 있는, 손만 벌리면 무엇이든 찾아낼 수 있는 자료와 지식·정보의 본산지로서의 도서관을 보급시켜야 하며 “없다”와 “모른다”라는 단어들을 도서관에서 추방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서 도서관은 정기적으로 특별 강의를 통하여 도서관이용을 지도하며 도서관이 생동감 없는 “장소”가 아니며 司書들이 도서를 지키는 수위가 아니라 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 특별강의에서는 카아드 배열방법, 참고도서, 독서지도등 여러 주제에 대하여, 도서관안에서 司書가 강의를 하든지, 강사를 초빙하든지 하여 도서관이 大學의 심장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체험을 통하여 느끼도록 해주며 그들의 實生活속에서 도서관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효율적인 도서관 이용은 도서관측, 교수, 학생들의 상호협조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모든 司書가 강의실에서 직접 강의는 하지 않더라도 도서관자료와 업무를 통하여 학생들은 가르치고 있다는 교육적인 사명을 갖고 대학사회의 학구적·정서적·정신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료·정보·지식을 보급하여 참다운 대학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 姜富弼：“韓國大學 圖書館學科의 教育課程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1970.
- 羅成實：“大學教養課程에 있어서 圖書館教育의 必要性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1972.
- 安永柱：“韓國에 있어서 大學圖書館의 效果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 1965.
- 李圭煥：“大學教育課程의 改革方向” 「教育評論」, 199, 5 (1975. 5) : 69—76.
- 韓基彥：“韓國 高等教育의 새로운 方向摸索” 「教育評論」, 205, 11 (1975. 11) : 65—69.
- 한상완：“대학교육개혁과 대학교서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도서관」, 172, 9 (1972, 9) : 18—27.
- Gates, Jean Key. *Guide to the Use of Books and Libraries* 3rd ed. New York: McGraw-Hill, 1974.

11) 이 주제에 대한 도서관 관계자들의 연구도 극히 적은 편이다. 1965년 安永柱, 1970년 姜富弼의 學位論文, 한상완의 論文에서 부분적으로 이 과목의 필요성을 다룬것에는 1972년 羅成實의 學位論文이 이 주제에 관한 유일한 單一연구이다.